

팔만대장경 타는 소리

팔만대장경이 탄다
한 자도 남김없이 태워
풀 한 포기였던 그때와
내가 너였던 한때를
아득하고 막연한 시절 모두를
지나간다

한나절 불길 속에
그렇게 길 하나가 열린다
한나절이면 되는 것을
재가 되어야 드러나는 것을
소식은 그렇게 오는 것을

팔만대장경이 탄다
찾아온 봄을 태우고
언덕 위의 바람을 태워
잊히기를
그 어디에도 없기를

한나절 불길 속에서
그렇게 길 하나가 사라진다
염불 한 줄이면 되는 것을
꽃 한 송이면 되는 것을
소식은 그렇게 한때인 것을

기다리고 기다린 것은
볼 것도 들을 것도 없는 시절
바람은 불어 봄이 또 오고
매일매일 팔만대장경이 탄다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
wanihollo@hanmail.net